

2023.8.15.(화) ~ 8.20(일) (4박6일)

- 관광산업 선진도시 벤치마킹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3. 08.



용인특례시의회

목 차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II. 출장국가 개요-----	3
III. 출장내용-----	7
1.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2. 의원연구단체 활동	
가. 사바주 관광청 방문	
나. 관광산업 벤치마킹	
다.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IV. 총평-----	29
V. 개별출장자 보고서-----	30

I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목 적

- 국외 관광도시 코타키나발루의 주요 관광 명소를 시찰 및 견학하여 용인특례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요소를 발굴.
-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소원해진 자매도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상호 교류 재개를 위한 계기를 마련, 우호 증진을 위한 토대를 닦음.

2. 기 간 : 2023. 8. 15.(화) ~ 2023. 8. 20.(일) [4박 6일간]

3. 대상국가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4. 출 장 자 : 총 12명

한 글	성 명 영 문	성 별	소 속 및 직 위(직급)	비 고
황재욱	HWANG JAE OUK	남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대표
남홍숙	NAM HONG SOOK	여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CHANG JUNG SOON	여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황미상	HWANG MI SANG	여	용인시의회 의원	간사
신현녀	SHIN HYUN NYEO	여	“	
이윤미	LEE YUN MI	여	“	
김병민	KIM BYUNG MIN	남	“	
이상욱	LEE SANG WOOK	남	“	
최창훈	CHOI CHANG HOON	남	의회사무국 직원	문화복지 전문위원
구민주	KOO MIN JU	여	“	
우종운	WOO JONG WOON	남	“	
이주현	LEE JOO HYUN	남	“	

5. 출장일정

일 자	지 역	교 통 편	시 간	일 정
제1일 8/15 (화)	인 천 코타키나발루	항공편 전용차량	17:15 21:35	◎ 인천출발 ◎ 코타키나발루 도착
제2일 8/16 (수)	코타키나발루	전용차량	10:30 13:00 17:00	◎ 공식일정 : 사바주 청사 방문 ◎ 말레이시아 외교사원 및 중국사원 ◎ 현장시찰(필리핀 마켓 야시장 등) - 상권 형성 요인 분석
제3일 8/17 (목)	코타키나발루	전용차량	전 일	◎ 공식일정 : 코타키나발루시청 공식방문 - 자매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교류회
제4일 8/18 (금)	코타키나발루	전용차량	전 일	◎ 공식일정 : 사바주 관광청 공식방문 -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 ◎ 공식일정 :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영사관 코타키나발루 분관 공식방문 - 코타키나발루 교민 및 대한민국 관광객 현황 관련 간담회
제5일 8/19 (토)	코타키나발루	전용차량 항공편	전 일 22:55	◎ 공식일정 : 사바주박물관 등 주요 관광시설 벤치마킹 - 사바지역 역사 탐방 및 분석
제6일 8/20 (일)	코타키나발루 인 천	항공편	05:1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II 출장국가 개요

1. 말레이시아 일반현황

- 가. 국명: 말레이시아(Malaysia)
- 나. 수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약 800만명, 2020년 추계)
- 다. 인구: 3,430만 명(2023년 추계)
- 라. 면적: 33만 252km²(한반도의 1.5배)
- 마. 언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 바. 종교: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
- 사. 민족: 말레이계(65%), 중국계(23%), 인도계(7%), 기타(5%)
- 아. 시차: 대한민국보다 1시간 늦음

2. 말레이시아 정치 현황

- 가. 정부형태: 의원내각제(양원제, 하원 우위)
- 나. 국가형태: 선임제 입헌군주제
- 다. 주요 인사
 - 국왕: 압둘라(His Excellency The Yang di-Pertuan Agong XVI Al-Sultan Abdullah Ri' ayatuddin Al-Mustafa Billah Shah ibni Almarhum Sultan Haji Ahmad Shah Al-Musta' in Billah)
 - 총리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 하원의장 : 아즈하(Datuk Azhar Azizan Harun)
 - 상원의장 : 라이스(Tan Sri Dato' Seri Utama Dr. Rais Yatim)
 - 외교장관 : 잠브리(Dato' Seri DiRaja Dr.Zambry bin Abd Kadir)

3. 말레이시아 경제현황

- 가. GDP: 3,730억\$ (2021, IMF)
- 나. 1인당GDP: 1만 1408\$ (2021, IMF 추정)
- 다. 경제성장률: 3.1% (2021, IMF)
- 라. 화폐단위: 링깃(1달러 = 4.2링깃, 2021년 평균, 세계은행)
- 마. 교역: 총 교역액 : 5,383억\$
- 바. 수출액: 2,990억\$
- 사. 수입액: 2,392억\$
- 아. 물가상승률: 2.5% (2021, IMF)
- 자. 실업률: 4.7% (2021, IMF 추정)

4.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 외교관계
 - 1960.02.23. 외교관계 수립
 - 1962.05.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설치
 - 1964.04. 주한 말레이시아대사관 설치
- 나. 교민현황
 - 말레이시아 내 한국인: 13,632명(외교부, 2021)
 - 한국 내 말레이시아인: 3,442명(법무부, 2021)

다. 방문

- 2005.12.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문
- 2010.12.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 2011.09. 박희태 국회의장
- 2015.11. 박근혜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 2017.03. 정세균 국회의장
- 2019.03.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문
- 2022.03. 박병석 국회의장

5. 사바주

가. 이름: 사바(Sabah)

- 말레이시아 13개 주 중 두 번째 큰 주

나. 위치: 보르네오섬 북쪽 일부, 말레이시아 최동단에 위치

- 칼리만탄주와 함께 보르네오섬을 구성

다. 인구: 약 391만 명(2020년 기준)

- 말레이시아 내 인구밀도 3위 주(12%)

라. 면적: 73,631km²

마. 민족: 전통민족 카다잔두순(Kadazan-Dusun), 중국계 등

- 말레이시아 타 지역에 비해 바자우 부족과 무룻 부족이 많이 살고 있음

- 인도나 다른 동남아 국가 출신의 인구는 적은 편임

바. 기후: 열대기후

사. 평균기온

-저지대(코타키나발루, 쿠닷, 산다칸, 타와우): 섭씨 32도

-고지대(라나우, 쿤다상, 탐부난): 섭씨 21도

6. 코타키나발루시

가. 이름: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나. 위치: 보르네오섬의 북동쪽, 사바주(Sabah)에 위치

다. 인구: 약 58만 명

라. 면적: 394km²

마. 지역적 특성

- 1) 사바주의 주도로 정치·행정·상공업의 중심
- 2) 천혜의 관광도시(세계적인 리조트 입지)
- 3) 동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구도시
- 4) 산 업: 목재, 고무, 커피 등 풍부한 자원
- 5) 관광명소: 키나발루 산, 사바박물관, 리카스 모스크, 가야 스트리트 선데이마켓, 사피 섬 등
- 6) 자매도시: 오스트레일리아 로킹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중국 허위안 등

III 출장내용

1.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가. 용인특례시와 코타키나발루시 간 자매도시 관계 확인



- 용인특례시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는 2004년 11월 25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었으나 코로나19 등 이유로 왕래가 드물었음.
- 이 같은 이유로 용인특례시와 코타키나발루시는 이번 공무 국외출장 이전까지 양 도시는 자매도시라 하기에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이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및 용인특례시청 자치분권과 공무원 등이 방문하여 양 도시가 여전히 자매도시 관계임을 확인한데서 나아가 코타키나발루시 측의 자매도시 관계 유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하였음. 아울러 양 도시 간의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물꼬를 새로이 틔움.

나. 용인특례시와 코타키나발루시 간 교류 추진 내역

구분	내용
2003. 5. 12.	용인시 교류의향서 발송
2003. 9. 6.~9. 9.	다독하지압틀가니 코타키나발루시장 외 3명 대표단 우호방문
2004. 1. 30.~2. 4.	용인시장 외 12명 대표단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방문
2004. 11. 25.	용인시·코타키나발루시 자매결연 체결
2005. 1. 29.~2. 3.	용인시장 외 22명 대표단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방문 예술단 축하공연 및 경제협력교류 방안 논의
2007. 1. 30.~2. 4.	용인시 부시장 외 17명 대표단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방문 예술단 축하공연 및 경제협력교류 방안 논의
2010. 2. 2.~2. 6.	문화관광과장 외 15명(예술단 축하공연)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방문
2010. 3. 18.	다독 알라즈 빈 이브라힘 사장 외 8명 우리시 방문, 공무원 교환근무 협의서 체결
2010. 7. 5.~2010. 7. 6.	코타키나발루시 대표단 4명 용인시 우호방문 용인시 사정관련 브리핑, 문화체험
2011. 9. 8.	코타키나발루시 시장(외 2명) 용인시 우호방문
2011. 11. 1.	코타키나발루시 대표단 7명 용인시 우호방문, 사정관련 브리핑, 문화체험
2012. 2. 1.~2. 5.	용인시 대표단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축하 방문
2013. 1. 31.~2. 4.	용인시 대표단 ‘코타키나발루시의 날’ 축하 방문
2013. 9. 1.~6.	경전철 운영현황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위한 쿠알라룸푸르 및 코타키나발루시 방문
2013. 10. 28.~10. 29.	지방행정연수원(개도국 지방행정교육)주관 코타키나발루시 교육생 방문
2014. 11. 2.~11. 7.	용인시의회 대표단 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방문
2015. 11. 30.~12. 1.	지방행정연수원(개도국 지방행정교육)주관 코타키나발루시 교육생 방문
2017. 5. 15.	용인시 유공자 코타키나발루 우호 방문(10명)

※ - 용인시 대표단 코타키나발루시 방문 : 8회 (* 04, * 05, * 07, * 10, * 12, * 13(2회), * 14)
 - 코타키나발루시 대표단 용인시 방문 : 5회 (* 03, * 10(2회), * 11(2회))

다. 코타키나발루시 초청장



DEWAN BANDARAYA KOTA KINABALU
(KOTA KINABALU CITY HALL)
No. 1, Jalan Bandaran, 88675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Tel: 088-521800 (HQ), 088-244000 (CPS) Faks: 088-233815, 219175, 316137
<http://www.dbkk.sabah.gov.my>

No. Rujukan: BPP:100-7/33
18 July 2023 (Tuesday)

Mayor of Yong-in Special City
Yong-in City Hall
1199, Jungbu-Dae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e Honorable Mayor Lee Sang-il,

OFFICIAL INVITATION TO VISIT KOTA KINABALU CITY HALL

Warmest greetings from Kota Kinabalu City Hall.

2. On behalf of the Kota Kinabalu City Hall and the people of Kota Kinabalu, I am delighted to extend a warm invitation to your esteemed council to visit Kota Kinabalu and to revitalize our relationship tha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Friendship City Program in 2004. We are pleased to have an official meeting with the members of the Yong-in Special City Council on date, time and venue as below:

Date : 17th August 2023 (Thursday)
Time : 10.00 am
Venue: Mayor's Meeting Room, 3rd Floor, Dewan Bandaraya Kota Kinabalu
No.1, Jalan Bandaran, 88675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3. We look forward to a successful strategic partnership with City of Yong-in and foster meaningful exchange of ideas and experiences between our two cities.

"SABAH MAJU JAYA"



Certified To ISO 9001 : 2015
Cert. No. : MY - QMS 07012



4. Should you need any further assistance, please contact Ms. Norsarahana binti Zaki at +6016-8294183.

We look forward to see you soon.

Thank you and best regards.

"WAWASAN KEMAKMURAN BERSAMA 2030"
"BERKHIDMAT UNTUK NEGARA"

Yours Faithfu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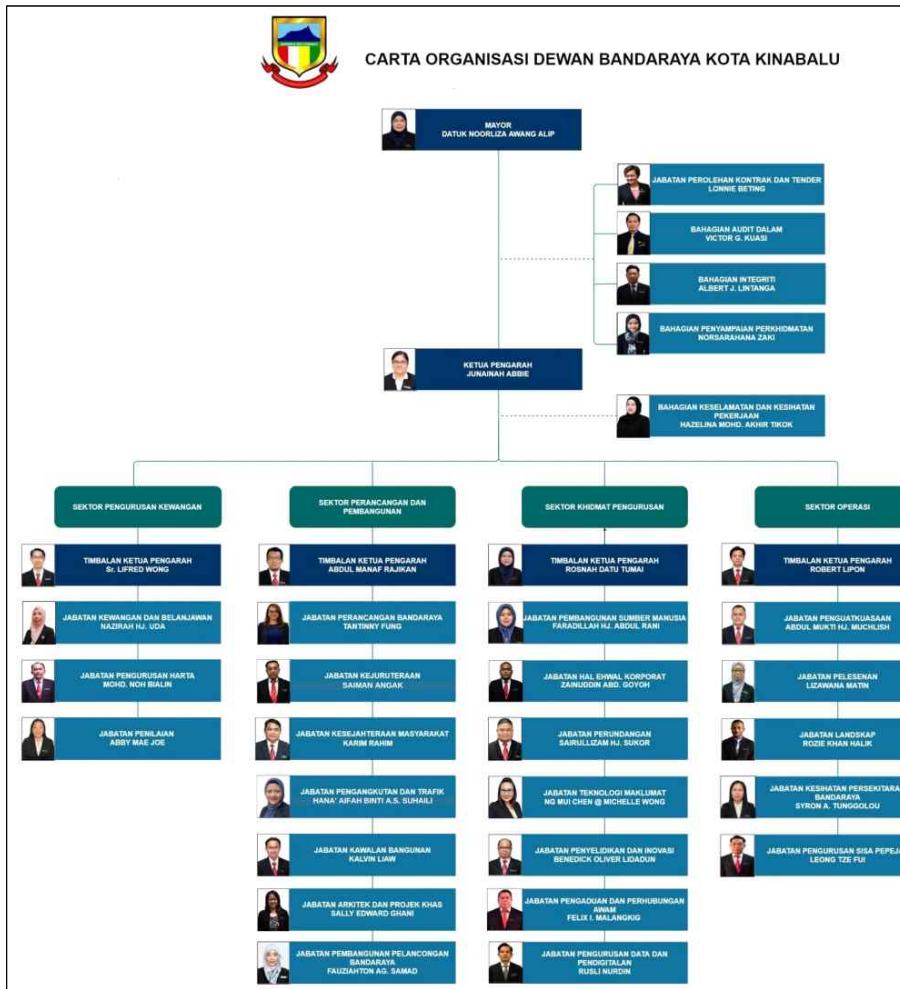

(DATUK NOORLIZA AWANG ALIP)
Mayor Bandaraya Kota Kinabalu
DEWAN BANDARAYA KOTA KINABALU

"SABAH MAJU JAYA"

라. 코타키나발루시청 방문 및 시장과의 간담회 추진

1) 코타키나발루시청 상세

- 조직도¹⁾



- 비전: 번영하는 코타키나발루

- 미션

△코타키나발루를 깨끗하고 친환경적이며 살기

좋은 도시로 개선

△만들기 유익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

△ 농촌 지역사회에 권한 부여

△ 도시 서비스 제공 개선

△ 코타키나발루시 조례 집행 강화

△ 효과적인 슬럼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및

적절한 정착지 제공

2) 방문개요

- 일 시 : 2023.8.17.(목) 10:00 ~ 12:00

- 장 소 : 코타키나발루시청 1층 미팅홀

- 내 용 : 자매도시 우호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3) 간담회 세부 계획

주요일정	내 용	비 고
영접 및 이동	시청 로비 영접 및 간담회 장소 이동	교류, 의전 담당자
시장 접견 및 방문록 서명	코타키나발루시장 접견 및 방문록 서명	황재욱 위원장
	코타키나발루시장 인사말씀	
	위원장님 인사말씀	
	코타키나발루시 관광 정책 관련 발표	코타키나발루시
	“LOVE KK Initiatives” 발표	코타키나발루시
간담회	자매도시 교류 재활성화 방안 논의	
	기념품 교환	의회, 시 선물 별도 전달
기념 촬영	단체 사진 촬영	

1) 출처 : 코타키나발루 시청 홈페이지(<https://dbkk.sabah.gov.my/index.php/en/>)

4) 코타키나발루시장 프로필



◆ 생 년 월 : 1965. 08.

◆ 주요경력

- 코타키나발루시장 (2021~)
- 코타키나발루시 사무국장 (2019-2020)
- 코타키나발루시 운영부문 부국장 (2017-2019)
- 코타키나발루시 재산관리과장 (2003-2017)

◆ 학 력 : 버킹엄대학교 법학과 졸업

누리자 아왕 알립 시장
(Datuk Mayor)

5) 간담회 참석자 명단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누리자 아왕 알립	여	코타키나발루시장
주나이나 애비	여	코타키나발루시청 사무국장
압둘 마나프 라지칸	남	코타키나발루시청 기획개발부문 부국장
알프레드 윙	남	코타키나발루시청 재정부문 부국장
로버트 리폰	남	코타키나발루시청 운영부문 부국장
로스나 다투 투마이	여	코타키나발루시청 관리서비스부문 부국장
노르사라하나 자키	여	코타키나발루시청 서비스제공과 과장
야니자 야히야	여	코타키나발루시청 서비스제공과 자매도시 교류 담당

6) 주요 활동 사진



<코타키나발루 시청사 전경>



<방명록에 서명하는 황재욱 대표>



<코타키나발루 시청에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황재욱 대표가 누리자 아왕 알립 시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



<코타키나발루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의 기념촬영>



<연구단체 회원들이 코타키나발루 시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7) 간담회 주요 내용

- 그간 자매도시로서의 교류가 끊김이 무색할 정도로 누리자 아왕 알립 코타키나발루시장은 용인특례시의회 및 시청의 방문을 환영하였음.
- 나아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자매결연이 끊기다시피 하여 아쉬웠는데 다시 이어져서 기쁘다” 며 “앞으로도 자매도시로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 고 말하였음.
- 또한 누리자 아왕 알립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는 ‘용인시(Yong-in city)’ 였으나 방문시점에 ‘용인특례시(Yong-in special city)’ 로 바뀐 이유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궁금해하였음.
- 특례시의 요건, 대한민국에 특례시가 단 4곳 뿐인 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누리자 아왕 알립 시장은 용인시가 단시간에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룬 사실과 배경에 큰 관심을 가졌음.
- 아울러 주나이나 애비 사무국장은 “코타키나발루시는 용인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를 코타키나발루시의 관광산업에 있어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고 하였음.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용인특례시와의 자매도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코타키나발루시 측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단순 교류를 넘어 관광산업, 나아가 양 도시간의 산업 전반에 걸쳐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함.

2. 의원연구단체 활동

가. 사바주 관광청 방문

1) 사바주 관광청 상세

-조직 구성²⁾

Sabah Tourism Board	
	Noredah Othman CHIEF EXECUTIVE OFFICER (CEO) Email: noredah@sabahtourism.com
	Julinus Jeffrey Jimit 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DCEO) Finance and Corporate Services Email: julinus@sabahtourism.com
	Tay Shu Lan 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DCEO) Marketing and Business Events Email: tay@sabahtourism.com
	Josephine Chai SENIOR MARKETING MANAGER AERO, ASEAN, Domestic Email: josephine@sabahtourism.com
	Humphrey Ginibun SENIOR MARKETING MANAGER Japan, Korea, Philippines, Indonesia, Thailand, India, Middle East, Russia Email: humphrey@sabahtourism.com
	Angeline Engchuan SENIOR RESEARCH MANAGER Email: angeline@sabahtourism.com
	Halimah Haji Hassan SENIOR PRODUCT MANAGER Email: halimah@sabahtourism.com
	Suzan Chan SENIOR CORPORATE SERVICES MANAGER Email: suzan@sabahtourism.com
	Mandy Chan INTERNAL AUDIT MANAGER Email: mandy@sabahtourism.com
	Cassie Forsythe COMMUNICATIONS & DIGITAL MANAGER Email: cassie@sabahtourism.com
	DIRECTOR OF BUSINESS EVENTS Email: helpdesk.sabahtourism.com
	Ernnie Chrrnie Donatus FINANCE & ACCOUNTS MANAGER Email: ernnie@sabahtourism.com

2) 출처 : 사바주 관광청 홈페이지(<https://tourism.sabah.gov.my/about-us/org-chart>)

- 사바주 관광청은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관광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바주 정부 산하 기관임.
- 1976년 8월 '사바관광진흥공사'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사바 관광청으로 재설립되었음.
- 부서: 7개 부서
(△연구 △제품 △마케팅 △MICE △디지털 및 통신 △금융 및 기업 서비스 △내부 감사 등)
- 비전: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의 사바주를 세계 최고의 문화, 모험 및 자연(CAN) 목적지로 홍보하고 자리매김함
- 미션: 지속 가능한 관광 관행을 채택하고 준수하기 위해 관광 이해관계자와 현명한 파트너십을 형성

2) 간담회 세부 계획

주요일정	내 용	비 고
영접 및 이동	사바주 관광청 로비 영접 및 간담회 장소 이동	교통, 의전 담당자
방문록 서명	방문록 서명	황재욱 위원장
간담회	사바주 관광청장 인사말씀	
	위원장님 인사말씀	
	사바주 관광청 관광 정책 관련 발표	코타키나발루시
	질의응답	
기념품 교환	사바주 관광청→용인시 용인시→사바주 관광청	용인시의회
기념 촬영	단체 사진 촬영	

3) 사바주 관광청장 프로필



노레다 오스만 청장
(Chief Executive Officer of Sabah Tourism Board)

◆ 주요경력

- 사바주 관광청장(CEO) (2019~)
- 커뮤니케이션 및 IT 부 부장 대행 (2016-2019)
- 시니어 마케팅 매니저 (영국·유럽·오스트레일리아·미국) (2011-2015)
- 마케팅 매니저 (영국·유럽·오스트레일리아) (2005-2010)
- 의사협력팀장 (1991-2005)

◆ 학 력 : 하와이대학교 관광학과 졸업

4) 사바주 관광청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성 명	성 별	소 속 및 직 위	비 고
노레다 오스만	여	사바주 관광청장	
헝프리	남	선임 마케팅 매니저	
크형 웬 잉	여	마케팅 매니저	

5) 주요 활동 사진

	
〈사바주 관광청사 전경〉	〈방명록에 서명하는 황재욱 대표〉
	
〈사바주 관광청사에서 사바주 관광청의 관광정책 등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황재욱 대표와 노레다 오스만 청장이 기념품을 주고받는 모습〉
	
〈연구단체 회원들과 사바주 관광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바주 관광청사 앞에서 연구단체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6) 사바주 관광청 방문

- 사바주 관광청장에 따르면 사바주에서 3번째로 큰 산업이 ‘관광산업’으로, 사바주 관광청은 사바주 관광을 세계 최고의 ‘에코투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함.
- 아울러 사바주와 코타키나발루시에 방문하는 관광객 중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사바주는 한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바주 관광청은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하거나, 비행기 내에서 사바주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운영하는 등(팬데믹 기간동안에는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 한국인 관광객들이 사바주와 코타키나발루시를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헝프리 선임 마케팅장에 따르면 사바주 관광청은 약 20여년전부터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 같은 사바주 관광청의 노력에도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은 쉽지 않음을 느낀다고 하였음.
- 이 같은 이유로 헝프리 마케팅장은 이번 간담회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부산·전주·광주·대구 등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음에는 용인시에서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 이 같은 사바주 관광청 관계자와의 대화를 토대로 예상하자면 용인특례시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코타키나발루시를 넘어 사바주 단위에서의 업무협약 또는 상호교류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나. 관광산업 벤치마킹

1) 사바주 박물관 벤치마킹(용인시 박물관 · 용인 농촌테마파크)



<사바주 박물관>



<용인 농촌 테마파크>



<사바주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 사진>



<용인시 박물관>

- 사바주 박물관은 푸른 정글처럼 꾸며져 있는 사바 식물원(약 174,014㎡=약 5만3천평)안에 자리잡은 박물관(약 170,000㎡=약51,400평)으로, 사바주의 역사, 문화, 사회, 자연에 관련된 자료가 한 곳에 전시되어 있음
- 이에 자연, 역사, 문화가 공존하며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용인에 있는 용인시 박물관 및 농촌 테마파크에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였음.



<연구단체 회원들이 사바주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구단체 회원들이 사바주 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구단체 회원들이 사바주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구단체 회원들이 사바주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 단순히 비교하자면 용인시 박물관과 사바주 박물관은 먼저 규모에서부터 차이가 있음. 이는 박물관에서 소개 · 전시할 수 있는 소재의 수용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사바주 박물관은 전시 구역을 나눠 사바주의 자연 · 역사 · 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용인시 박물관의 전시물에 비하면 비록 오래되어 낡고, 매무새가 떨어

지는 등 부족한 모습도 보였으나, 큰 줄기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배울 점이 있었음.

- 이는 용인 농촌테마파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용인 농촌테마파크는 이미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공원임이 분명한데, 여기에도 큰 줄기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짜맞출 수 있다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필리피노 마켓 벤치마킹(용인 중앙시장)



<코타키나발루시 필리피노 마켓 야시장>



<용인 중앙시장>

- 필리피노 마켓은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식료품을 판매하는 로컬시장으로, 코타키나발루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꼽힘
- 용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용인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서 로컬푸드와 전통시장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였음



<필리피노 마켓의 모습>



<필리피노 마켓을 둘러보고 있는 연구단체 회원들>



<필리피노 마켓을 둘러보고 있는 연구단체 회원들>



<필리피노 마켓에서 장사하고 있는 한 상인의 모습>

- 필리피노 마켓은 코타키나발루시를 방문한 방문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 꼽힐 만큼 볼거리, 먹거리가 즐비하고, 취급하는 품목도 다양했으나,
- 관광지임을 고려하더라도 심각하게 비위생적인 환경과 청결 등 문제로 당초 계획과 달리 이를 용인 중앙시장에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됨.
- 실제로 현지 가이드조차 ‘필리피노 마켓에서는 그 무엇도 사먹지 말 것’을 당부할 정도로 비위생적이었음.
- 필리피노 마켓을 반면교사로 삼아 용인 중앙시장을 재정비하는 것이 관광객 유인에 도움이 될 것임.

3) 사바주립 모스크와 중국 사원 (용인 와우정사)



- 사바주립 모스크는 이슬람 건축 양식과 현대적 디자인이 조화롭게 지어진 모스크(이슬람 사원)로, 금으로 장식된 지붕과 코란의 구절이 금으로 새겨진 16개의 기둥이 사원을 둘러싼 이국적인 종교문화 체험 장소임
- 1980년에 지어진 중국 사원(Kuil Buddha Puh Toh Si)은 코타키나발루시 내 중국계 사원 중 가장 크고 오래된 불교 사원으로, ‘보타사’ 라고도 불리며, 중국 전통 양식의 원형문, 붉은 장식, 중국식 정원 등이 있음.
- 이들 기관이 모두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점에 착안하여 용

인시의 범륜사·와우정사 등 종교시설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 및 종교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음.



- 사바주립 모스크의 경우 코타키나발루시가 있는 말레이시아가 국교로 이슬람교를 택하고 있는 점, ‘종교 경찰 기관’ 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엄격한 규율의 적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임.
-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경우라면, 종교적 이유로 이 곳을 찾거나, 독특한 건물 양식을 목도하기 위함일 것임.
- 중국 사원 또한 코타키나발루시 인구의 24%가 화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사바주립 모스크와 비슷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보여짐.
- 이들 기관을 용인시에 적용하려면 주안점을 ‘종교’ 시설에 둘 것이 아니라 종교 ‘시설’ 에 두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종교에 중점을 두고 의미를 부여해 이와 관련한 방문객을 유인하자는 것이 아닌, 독특하거나 특기할만한

점이 있는 종교시설임을 부각하자는 의미임.

- 용인의 와우정사는 이에 가장 부합하는 시설로, 사찰이면서도 여타 사찰과 달리 가히 공원이라 칭해도 좋은 규모의 개방형 사찰임.
- 또한 유명한 누워있는 불상은 와우정사를 대표하는 볼거리이며, 이 밖에도 불자들이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쌓은 돌탑과 황금으로 만든 통일종 등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함.
- 코타키나발루시의 사바주립 모스크와 중국 사원이 건물의 독특한 외양이나 종교적 의미 이외에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장점이 없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점에 비추어보면 상술한 이유로 용인의 와우정사는 용인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영사관 코타키나발루 분관 공식방문

1)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영사관 상세

- 주소: L7.02, Level 7, Plaza Shell, 29 Jalan tunka Abdul Rahman, 88000 Kota Kinabalu, Sabah
(코타키나발루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20분 소요)
- 주요 업무:
△재외동포 영사 동포행사 지원 등 동포사회 발전 추진
△주재국과 협조하여 사건·사고 처리
△여권, 비자, 인증, 병역 등 민원 행정
△주재국 관련 정보를 동포사회에 전달

2) 주요 활동 사진



3) 간담회 주요 내용

- 현지 교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한국인 교민 회장이 35년 동안 대한민국 영사관을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함.
- 때문에 대한민국 영사관 코타키나발루 분관이 생겼을 때 한국인 교민들이 매우 기뻐했으며, 이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영사관 코타키나발루 분관이 갖는 의미가 큼.
- 뿐만 아니라 코타키나발루에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수를 고려하면 주재국과 협조하여 사건·사고를 처리하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비자가 만료됐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영사관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음.
- 대한민국 영사관 코타키나발루 분관이 긴 시간에 걸쳐 어렵게 생긴 만큼 코타키나발루 교민들을 위해 힘써주고,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음.

IV 중평 및 향후계획

1. 총평

가. 자매도시 방문을 통해 양 시의 우호관계 확인

-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임을 확인하였음.
- 누리자 아왕 알립 코타키나발루 시장을 비롯한 코타키나발루시 대표단의 용인특례시 공식방문 의사표명
-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나. 사바주 관광청과의 교류 가능성 모색

- 사바주 관광청이 한국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봄.

다. 대한민국 영사관 코타키나발루 분관 공식방문

- 사바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 및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많은 지원을 요청, 우호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유지 도모

라. 코타키나발루시의 주요 관광자원을 벤치마킹해 용인특례시 관광 인프라에 적용하고 구축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향후 계획

가. 2023.9.22.~24. :코타키나발루시 대표단³⁾의 용인특례시 방문

3) 코타키나발루 시청 15명, 의회 15명, 총 30명 예정.

V 개별출장자 보고서

보 고 자	시의원 황 재 욱
○ 출장내용 - 용인특례시 자매도시와 장기간 중단되었던 교류 재개 및 관광 정책 벤치마킹을 위하여 말레이시아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시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옴. - 코타키나발루 시청을 방문하여 누리자 아왕 알립 코타키나발루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의지를 다짐. - 사바주 관광청을 방문하여 노레다 오스만 관광청장과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주코타키나발루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와 코타키나발루시의 자국민 여행에 대한 상세한 현황을 청취함.	
○ 활용(적용)방안 - 코타키나발루시는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친환경 관광 상품(탄소중립 로컬 커뮤니티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음. 용인시는 경기도 시군구 중 온실가스 배출 4위 도시임. 시정연구원에서도 탄소중립도시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임. 용인시 역시 코타키나발루시처럼 관광 분야에서 역시 환경적 관점을 지닌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또한 코타키나발루시는 IT 기술을 활용한 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있음. 용인시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시는 변화하는 관광 소비의 형태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을 발굴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트렌드를 선도해야 할 것임.	

○ 총 평

- 사바주 관광산업의 현황과 운영 방식을 직접 접하며, 이를 통해 용인시 관광산업의 강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음. 또한 코타키나발루시의 성공·실패 사례를 듣고 배우며 용인 지역 관광산업의 방향성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또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타 지역·국가의 관광산업 관계자와 소통하고 네트워킹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음. 이를 통해 협력 가능성과 지역 간 교류를 확장할 수 있었음.
- 용인시의 2023년도 재정 규모에서 문화 및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은 3.61%에 불과함.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와 경험을 기반으로 용인 지역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보 고 자	시의원 남 홍 숙
○ 출장내용 -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시 6년 만의 공식 방문으로 자매결연 관계 유지 - 코타키나발루 시청을 방문하여 누리자 아왕 알립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보다 더 상호 밀접한 자매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교류 재활성화 방안 논의 - 코타키나발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의 노력 확인 · 탄소중립 로컬 커뮤니티 관광 상품 개발 · 시대 흐름에 맞춘 IT를 접목한 관광 정책 개발 중 - 사바주 관광청을 방문하여 코타키나발루시 주요 관광지 소개 및 사바주 차원의 관광 우수 정책 관련 토론 - 올해 4월 개관한 대한민국 코타키나발루 영사관을 방문하여 내실 있는 자국민 보호 및 자국 관광객 지원에 대한 논의 -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시의 주요 관광지 벤치마킹 (필리핀 마켓, 회교사원 및 사바주립모스크 등)	
○ 활용(적용)방안 - 코타키나발루시는 ‘황홀한 석양의 섬’이라는 별명에 답게 세계 3대 석양이라 불리는 낙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음 - 용인 8경 중 하나인 이동읍 송전저수지의 ‘어비낙조’ 역시 저수지 수면과 황금 들판을 동시에 붉게 적시는 노을로 버드나무 사이로 피어오르는 물안개가 몽상적이므로 적용가능할 것임	

○ 활용(적용)방안

- 관내 관광자원을 코타키나발루시처럼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역의 스토리를 엮어 관광 자원화 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 중요함
-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유관단체·전문가와 함께 연구 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 총 평

- 관광산업은 우리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활동처를 발굴하고, 나아가 타지역 주민의 방문으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 산업임
-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축제를 비롯한 관광자원으로서 개발이 미진한 상황임
-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관광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의 스토리와 엮는 작업, 인근의 교통과 편의시설을 증진하는 작업 등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작업이 이뤄져야 함
- 또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후대에도 지속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코타키나발루시처럼 탄소중립 로컬 커뮤니티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등 극심해지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개발이어야 함
- 이는 소관부서인 관광과뿐만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예술과, 미래 산업 유관부서 등 다양한 부서가 협업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과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느끼는 기회였음

보 고 자

시의원 장 정 순

○ 출장내용

-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시 방문(코타키나발루 시청, 사바주 관광청, 주코타키나발루 대한민국 영사관 공식방문, 주요 관광지 벤치마킹)
- 팬데믹 이후 소원했던 교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자 누리자 아왕 알립 코타키나발루 시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함. 이를 통해 단순한 자매도시를 뛰어넘어 용인특례시와 코타키나발루시가 문화적·경제적으로 상호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는 코타키나발루시의 의지를 확인함.
- 사바주 관광청을 방문해 팬데믹 이후 사바주의 관광 정책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짐.
- 지난 4월 개관한 주코타키나발루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영사와 효율적인 자국민 보호 및 자국 관광객 지원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차담회를 가짐.

○ 활용(적용)방안

- 코타키나발루시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높이의 산인 키나발루산 과 세계 3대 석양이라 불리는 낙조를 볼 수 있으며,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 사피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구 시장 건물을 개조하여 문화 예술 공간으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활성화 하는데 성공했 음.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자연, 문 화가 어우러진 관광 명소를 개발 및 활성화 하는 사업을 추진 해야할 필요성을 느낌. 또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지 않고 유지 하는데 집행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함.

○ 총 평

-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시는 말레이시아 동부 보르네오섬의 최대 도시로 국제공항, 철도, 고속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갖추고 있음. 아울러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관광지 개발에 있어 인위적인 재개발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나아가 현재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보존하여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과거부터 대한민국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성장일 것임. 경쟁으로 과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대인들은 피로를 느꼈고, 이 같은 시대상을 대변하듯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음. 용인시는 아직 관광 사업의 비중이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관광사업은 확실한 미래 먹거리이며, 이번 출장을 통해 잘 갖춰진 환경에서의 관광은 경제적 이득도 상당함을 느꼈음.

보 고 자	시의원 황 미 상
○ 출장내용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단은 용인특례시와 자매도시이자 관광 산업으로 유명한 코타키나발루시를 방문함. 자매도시였으나 - 코타키나발루시와는 2017년 이후 사실상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두 도시의 교류를 위해 방문 하였음 - 코타키나발루의 중심의 랜드마크인 사바주 청사와, 시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였음. - 또한 사바 박물관을 방문하였음 - 코타키나발루의 대한민국 영사관 본청을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용인특례시 의원으로써 참으로 자랑스럽고 의미있는 출장이었음.	
○ 활용(적용)방안 - 이번 공무 국외출장은 용인특례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코타키나발루시 및 사바주 관광청가 관광산업을 대하는 정책을 듣고, 자매도시로써 교류를 재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계획되었음. - 박물관은 실물 크기의 건축과 보존을 통해 경이로움과 숨겨진 역사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문화유산의 보존이 잘 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사바주, 나아가 코타키나발루시의	

과거 발자취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어 우리 용인시에도 접목한다면, 역사의식을 충분히 고취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용인특례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우리 연구단체는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할 것이며,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도시로써 다시 한번 발돋움 할수 있도록 노력과 연구를 아끼지 않을 것임. - 이제 110만 인구의 특례시로서 용인특례시에 걸음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단계별로 보고, 즐기고, 누릴수 있는 머뭇의 관광지가 될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실효적인 방안부터 찾아볼 계획임.
○ 총 평 - 반도체 산단과 SK 하이닉스로 용인특례시가 극대화 대도시로 전략되어지는 현시점에 관광산업의 매체는 함께 급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임. - 시대에 앞서가는 용인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가 문화관광의 콘텐츠 개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용인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체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임.

보 고 자	시의원 신 현 녀
○ 출장내용 ◆ 출장지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 말레이시아의 13개 주 중 사바주에 속함, 연방제국가. -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음식, 언어가 같고, 전쟁을 한적도 있는 관계임. - 인구 : 50만 - 국화 : 히비스커스 (풍어라이어) - 떼놈커피, 초콜릿이 유명 -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항구를 증설하고 있는 중임. - 이슬람교에 대해 * 국기에 나타남 그믐달과 별이 있으면 이슬람국가 * 전세계에서 단일 종교로는 가장 많은 신도 수를 자랑 * 히잡 : 코타키나발루에서는 ‘두둥’ 으로 부르며, 만 4세 이상의 여성은 반드시 착용해야 함 * 두둥을 쓰는 이유 · 이슬람종교는 마호메트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창시 · 원래 햇빛이 강해서 썼다 ·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면 안된다는 이유이기도 함 * 돼지고기는 하람으로 금기시 됨(세상의 모든 죄를 돼지에 넣어서 껴맸기 때문에 단 한점도 입에 넣지 않으려고 함. 교리적인 이유) * 이슬람은 일부 4처제 적용 * 결혼 시 지참금 필요 * 경제력 과시, 소떼로 교환 - 네델란드, 일본, 호주 등 국가에 400년 동안 지배를 받은 역사가 있음. - 수상가옥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필리핀 사람들임. 코타키나발루의 어두운 면모라고 할 수 있음.	

○ 활용 방안

- 천혜의 환경을 가진 코타키나발루의 관광산업의 발달이 더딘 이유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지 않은 이유일 것으로 짐작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자연경관과 문화 유산, 그리고 개발 가능한 공간이 남아 있어 관광 도시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바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람.
- 용인특례시 또한 주어진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용인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 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필라피노 마켓의 벤치마킹을 통해 용인특례시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이 로컬푸드와, 바른 먹거리, 기념품등 판매 전략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함. 또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임에도 비위행적으로 보이는 먹거리, 청결하지 않은 주변 환경등이 개선할 점으로 생각됨.

○ 총 평

- 지구온난화로 기후위기에 대한 전세계적인 이슈를 감안하여 에코투어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관·현장 종사자가 한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 용인특례시도 본받아야 할 부분으로 보여짐. 우리시도 온실가스 배출 4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탄소중립실현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보임
- 코타키나발루의 도로, 교통 부족이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란 생각됨 우리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확충, 편의 시설 증진이 필수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관광청에서는 다수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청결, 쾌적함, 식사등의 분야에서 투숙객의 만족도가 높지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만큼, 숙박시설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시급해보임. 우리시의 경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퀄리티 좋은 숙박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보임.
- 자매도시인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양 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4조에 달하는 재정 규모에 비해 문화, 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우리시가 자연 경관과 더불어 기존 에버랜드나 민속촌, 다수의 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에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음.

보 고 자	시의원 이 윤 미
○ 출장내용 - 말레이시아 사바주의 코타키나발루시 방문(코타키나발루 시청, 사바주 관광청, 대한민국 코타키나발루시 영사관 공식방문 및 주요 관광지 벤치마킹) - 코타키나발루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끊어졌던 교류를 다시 잇고, 코타키나발루의 관광을 위한 시의 노력을 확인함 (탄소중립 로컬 커뮤니티 관광 상품 개발 및 IT를 접목한 관광 정책 개발 중) - 사바주 관광청 방문 사바주의 관광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 마련(코타키나발루의 관광지 소개 및 사바주 차원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 - 올해 4월 오픈한 대한민국 코타키나발루 영사관을 방문하고 영사와 차담회를 나눔. 코로나19이전 코타키나발루의 한국인 관광객은 35만명, 중국인 관광객은 100만이었으나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은 그렇지 못하여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상황.	

○ 활용(적용)방안 -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업을 이용하는 종사자들의 아이디어를 더하여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관광지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노력이 가능한 구조 만드는 역할을 시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자연 경관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나서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 총 평 - 지리, 역사적 상황에 따라 관광산업이 큰 포지션을 이루지 못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고 있으나 천혜의 경관과 자연적인 자원으로 관광산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관광 발전이 단순히 관광지 개발뿐 아니라 관광지 주변의 교통 및 편의시설 증진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됨. - 용인의 경우도 시의 관광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작으나 미래 산업의 발전 방향을 생각하면 관광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개발할 필요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음. - 나날이 심해지는 환경 생태계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 개발이 절실하니만큼 관광에서도 탄소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관광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였음.

보 고 자	시의원 김 병 민
○ 출장내용 용인특례시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는 용인특례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게하여 <u>용인특례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하였다.</u> 천혜의 자연 환경과 특급 리조트가 있어 가족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곳인 ‘코타키나발루’를 다녀왔다. 아울러 코타키나발루시는 용인특례시와 2004년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다.	
○ 코타키나발루시 방문 시장(누리자 아왕 알립), 사무국장(주나이나 애버), 기획개발부 부국장(압둘 마나프 라지간), 재정부 부국장(알프레드 웅),관리서비스부 부국장(로버트 리폰),서비스제공 과장(노르사라하나 자키),서비스제공과 자매도시 교류담당(야니자 야이야) 등. 코타키나발루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코타키나발루 관광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 사바주 관광청 방문 말레이시아는 13개의 주가 있으며, 코타키나발루는 사바주에 위치하고 있다. 사바주 관광청은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 폭격에도 살아남은 세 개의 건물 중 하나이며 ‘완전히 복원된 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사바주의 관광 안내소로 역할을 한다. 사바주 문화관광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u>용인시의 문화관광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u> 생각해 볼만하다.	

○ 활용(적용)방안 사바주는 그들의 역사와 전통성을 중시하며 그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지가 발달했다. 몇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사바주 박물관은 퉁우스 퉁 하우스를 주 건물로 두어 에스노 그래피 갤러리(전통의상 및 공예품)와 도자기 갤러리, 선사 갤러리로 나뉘어져 사바주의 역사와 전통을 알려주었고, 시내에서 16km 떨어진 몬소피아드 민속촌은 카다잔의 다양한 전통, 놀이 및 음식 등을 보여주었다. 코타키나발루의 공예품 시장과 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용인시 중앙시장과 비교하는 등, <u>우리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만의 전통적인 관광지 개발, 발전에 도움 되리라고</u> 생각한다.
○ 총 평 2000년에 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은 후 단기간에 관광지로 인기가 높아진 코타키나발루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하면서 원주민의 전통성과 역사를 잃지 않았다. 한반도 및 경기도의 중심에 있는 용인시 또한 <u>자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개발에 힘쓴다면 긍정적인 관광 발전이</u>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보 고 자	시의원 이 상 욱
○ 출장내용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코타키나발루 시청-사바주 관광청-대한민국 코타키나발루시 영사관-사바박물관)방문. - 용인시와 자매도시로 교류 중인 코타키나발루시에 방문. 2017년 이후 교류가 끊긴 이래 처음으로 시청 등 공공기관에 방문하였음. - 코타키나발루 시장을 비롯한 사바주관광청장, 영사관 등을 직접 만나 면담하였음.	
○ 활용(적용)방안 - 이번 출장을 통해 코타키나발루의 랜드마크인 사바주 청사, 말레이시아 화교문화를 볼 수 있는 화교사원, 불교와 도교의 융합을 볼 수 있는 불교사원, 필리핀 마켓 야시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파악하였고, 용인시도 이처럼 용인시만의 특색있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에버랜드, 와우정사, 기흥호수공원 등 기존 자원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함. 이 같은 관광자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총 평 - 2006년 처음 용인시와 코타키나발루시가 자매도시 협약을 맺은 후, 왕성한 교류가 있었으나 2017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코로나19라는 세계규모의 팬데믹 상황으로 사실상 교류가 끊어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교류가 없었으나, 이번 공무 국외출장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시장, 사바주 관광청장, 대한민국 영사 등과 직접 면담하였음. - 직접 면담을 통해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코타키나발루 시장은 처음 교류를 맺었을 당시 ‘용인시’였으나 지금은 ‘용인특례시’로 바뀐 이유에 대해 묻는 등 용인시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가졌음. - 뿐만 아니라 코타키나발루 시장은 빠른 시일내로 용인시에 방문하여 추가적으로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